

## ◆ 06-6평 46~50번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처를 입은 노루는 설원에 피를 뿌리며 도망쳤다. 사냥꾼과 몰이꾼은 눈 위에 방울방울 번진 펫자국을 따라 노루를 쫓았다. 펫자국을 따라가면 어디엔가 노루가 피를 쏟고 쓰러져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흰 눈을 선연하게 물들이고 있는 펫빛에 가슴을 섬뜩거리며 마지못해 일행을 쫓고 있었다. 총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와 같은 후회가 가슴에서 끝없이 피어올랐다. <나>는 차라리 노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기 전에 산을 내려가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망설이기만 할 뿐 가슴을 두근거리며 해가 ①저물 때까지도 일행에서 멎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펫자국은 끝나지 않았고, <나>는 어스름이 내릴 때에야 비로소 일행에서 떨어져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곧 열이 심하게 앓아 누웠기 때문에, 다음날 그들이 산을 세 개나 더 넘어가서 결국 그 노루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자리에서 소문으로 듣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만으로도 몇 번이고 끔찍스러운 몸서리를 ②치곤 했다.

서장(序章)은 대략 그런 이야기였다. 물론 내가 처음에 이 서장을 읽은 것은 아니었다. 어느 중간을 읽다가 문득 긴장하여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된 것이었지만, 여기에서도 나는 그 총소리 하며 노루의 펫자국이나 눈빛 같은 것들이 묘한 조화 속에 긴장기 어린 분위기를 이루고 있음을 느꼈다. 사실 여기서도 암시하고 있듯이 형의 소설은 전반에 걸쳐서 무거운 긴장과 비정기가 흐르고 있었다.

형의 내력에 대한 관심도 문제였지만, 형의 소설이 나를 더 욱 초조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이상하게 나의 그림과 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었다. 혜인과 헤어지고 나서 나는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③그리고 싶어졌다. 사실 내가 모든 사물에 앞서 사람의 얼굴을 한번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하게나마 꽉 오래 지녀온 갈망이었다. 그러니까 혜인과 헤어지게 된 것이 그 모든 동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무렵 그런 충동이 새로워진 것은 사실이었다.

나의 그림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견딜 수 없이 괴로운 일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화필과 물감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의 10분의 1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나는 인간의 근원에 대해 생각을 좀 더 깊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절실했던 점만은 지금도 고백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여 에텐으로부터 그 이후로는 아벨이라든지 카인, 또 그 인간들이 지니고 의미하는 속성들을 즉흥적으로 생각해 보곤 하였다. 그러나 어느 것도 전부를 궁정할 수는 없었다. 단세포 동물처럼 아무 사고도 찾아볼 수 없는 에텐의 두 인간과 창세기적 아벨의 선 개념, 또 신으로부터 영원한 악으로 단죄받은 카인의 짙투 —그것은 참으로 인간의 향상 의지로서 신을 두렵게 했을는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 나타난 수많은 문화, 선과 악의 무한정한 배합 비율……. 그러나 감격으로 나의 화필이 ④떨리게 하는 얼굴은 없었다. 나는 실상 그 많은 얼굴들 사이를 방황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혜인 이후 나는 벌써 어떤 얼굴을 강하게 예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직은 내가 그것과 만날 수 없었을 뿐이었다. 둉그스름한, 그러나 퇴어 나갈 듯이 긴장한 선으로 얼굴의 외곽선을 떠 놓고 (그것은 나에게 있어 참 이상한 방법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고심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설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었을 것이다. 형이 불쑥 나의 화실에 나타났다. 그는 낮부터 취해 있었다. 숫제 나의 일은 ⑥ 제쳐 놓고 학생들에게 매달려 있는 나에게 형이 시비조로 말했다.

“흥! 선생님이 그리는 사람은 외롭구나. 교합 작용이 이루 어지는 기관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으니…….”

⑦ 얼굴의 유파만 떠 놓은 나의 화폭을 완성된 것에서처럼 형은 무엇을 찾아내려는 듯 요리조리 뜯어보고 있었다. 나는 물끄러미 그 형을 바라보았다.

“그건 아직 시작인걸요.”

“뭐, 보기에 따라서는 다 된 그림일 수도 있는걸……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아들일지도 몰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하지만, 눈과 입과 코…… 귀를 주면…… 달라질 테지——한테, 선생님은 어느 편이지?”

형은 그림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눈이 무엇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밖에서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을 알고 있는 눈이었다. 나는 어리둥절해 있기만 했다.

“흥, 나를 무시하는군. 사람의 안팎은 합리적 논리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술가도 이 의사에게 동의해 줄 테지. 그렇다면 내 얘기도 조금은 맞는 데가 있을지 몰라. 어때, 말해 볼까?”

형은 도시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했다. 무엇인가 열심이라 는, 열심히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 새로 탄생할 인간의 눈은, 그리고 입은 좀더 독이 [A] 흐르는 쪽이어야 할 것 같은데…… 희망은——이건 순전히 나의 생각이지만, 선(線)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 이야.”

이상하게도 형은 나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

46.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관성을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군.
- ② 개인과 사회의 갈등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겠군.
- ③ 간결한 문체와 사실적인 묘사로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 주고 있군.
- ④ 줄표(—)와 줄임표(……)의 활용을 통해 상황에 대한 서술 자나 인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 ⑤ 추상적인 개념어를 사용한 요약적 서술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한 장면 제시를 모두 활용하고 있군.

47. 위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시간적인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1점]

—<보기>—

- ㄱ. 형이 소설을 쓴다.
- ㄴ. 동생이 혜인과 헤어진다.
- ㄷ. 동생이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
- ㄹ. 형이 동생의 화실을 방문한다.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③ ㄴ-ㄷ-ㄱ-ㄹ ④ ㄴ-ㄷ-ㄹ-ㄱ

⑤ ㄷ-ㄹ-ㄱ-ㄴ

48. ⑦을 통해서 동생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싶지만, 아직은 형과의 거리를 좁힐 수 없다.
- ② 종교적 깨달음의 감격을 누리고 싶지만, 아직은 인간적인 한계가 크다.
- ③ 순수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방법을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다.
- ④ 그림에 근원적이고 절실한 의미를 담아내고 싶지만,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 ⑤ 그림에 몰두하여 혜인과 이별한 상처를 치유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다.

49.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생의 예술적 견해를 집약해서 보여 준다.
- ② 형이 동생의 심리 상태를 간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형이 동생의 그림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것을 찾았음을 시사 한다.
- ④ 형이 동생의 그림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얼굴 모습을 암시 한다.
- ⑤ 동생의 삶의 태도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형의 의식을 암시 한다.

50. 위 글과 <보기>의 ①~⑤를 각각 대응시켰을 때, 그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1점]

—<보기>—

산을 한 굽이 돌아서자 날이 벌써 ① 저물어 가고 있었다. 아침 해가 앞산 위에 떴나 보다 하면 벌써 뒷산에서는 해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산골은 날씨 변화가 심해서 땅 거미와 더불어 순간적으로 비바람이 ⑥ 치기 시작했다. 친구가 ⑦ 그려 준 약도를 가지고 나는 산 너머에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친구의 집을 찾아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산 중턱을 지나면서 젖은 품이 ④ 떨려 오기 시작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만사를 ⑤ 제치고 친구를 찾아가는 마음은 산길을 타는 고통을 잊게 했고 한층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었다.

① ④ ② ⑤ ③ ⑥ ④ ⑦ ⑤ ⑥

## ◆ 08-6평 23~26번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어인 까닭인지 모두들 구석진 좌석을 좋아하였다. 구보는 하나 남아 있는 가운데 탁자에 앉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엘만의 「발스 센티멘털」을 가장 마음 고요히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선율이 채 끝나기 전에, 방약무인(傍若無人)한 소리가, 구포 씨 아니오—— 구보는 다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⑦ 시선을 온몸에 느끼며,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중학을 이삼 년 일찍 마친 사내, 어느 생명 보험 회사의 외교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평소에 결코 왕래가 없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알은체를 하려는 것은 오직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먹은 술 탓인지도 몰랐다. 구보는 무표정한 얼굴로 약간 끄떡하여 보이고 ⑧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사내가 또 한 번, 역시 큰 소리로, 이리 좀 안 오시료, 하고 말하였을 때 구보는 ⑨ 게으르게나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탁자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리 좀 앉으시오. 참, 죄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포 씨.

이 사내는, 어인 까닭인지 구보를 반드시 '구포'라고 불음하였다. 그는 맥주병을 들어 보고, 아이 쪽을 향하여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다시 구보를 보고, 그래 요새두 많이 쓰시우. 무어 별로 쓰는 것 '없습니다.'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끼며,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와 사이에 간격을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⑩ 이 딱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 득의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한 잔 십 전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구보에게 술을 따라 권하고, 내 참 구포 씨 작품을 애독하지.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보가 아무런 감동도 갖지 않는 듯싶은 것을 눈치 채자, 사실, 내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보고,

“구포 씨를 선전하지요.”

그러한 말을 하고는 혼자 허허 웃었다. 구보는 의미몽롱한 웃음을 웃으며, 문득, 이 용감하고 또 무지한 사내를 고급(高給)으로 채용하여 구보 독자 권유원을 시키면, 자기도 응당 몇십 명의, 또는 몇 백 명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난데없는 생각을 하여 보고, 그리고 ⑩ 혼자 속으로 웃었다. 참 구보 선생, 하고 죄 군이라 불린 사내도 말참견을 하여, 자기가 독견(獨鶴)의 「승방비곡(僧房悲曲)」\*과 윤백남(尹白南)의 「대도전(大盜傳)」\*을 걸작이라 여기고 있는 것에 구보의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 어느 화재 보험 회사의 권유원인지도 알 수 없는 사내는, 가장 영리하게,

“구보 선생님의 작품은 따루 치고…….”

그러한 말을 덧붙였다. 구보가 ⑪ 간신히 그것들이 좋은 작품이라 말하였을 때, 죄 군은 또 용기를 얻어, 참 조선서원고료(原稿料)는 얼마나 됩니까. 구보는 이 사내가 원고료라 발음하지 않는 것에 경의를 표하였으나 물론 그는 이러한 종류의 사내에게 조선 작가의 생활 정도를 알려 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는다.

그래, 구보는 혹은 상대자가 모멸을 느낄지도 모를 것을 알면서도, 불쑥, 자기는 이제까지 고료라는 것을 받아 본 일이 없어, 그러한 것은 조금도 모른다 말하고, 마침 문을 들어서는 벗을 보자 그만 실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어라 말할 수 있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 노트와 단장을 집어 들고, 마약 자리에 앉으려는 벗에게,

“나갑시다. 다른 테로 갑시다.”

밖애, 여름 밤,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승방비곡」·「대도전」: 1930년대에 큰 인기를 얻었던 장편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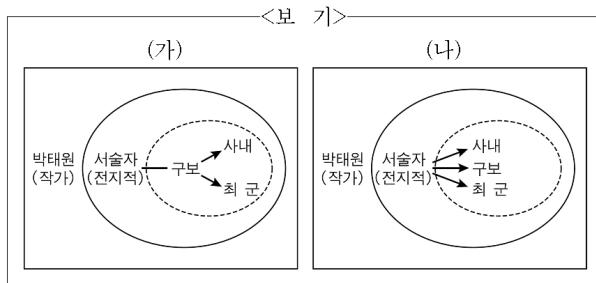
### 2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한된 공간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세태를 암시하고 있다.
-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③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여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
- ④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활용하여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
- ⑤ 쉼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24. ⑦~⑩에 나타난 ‘구보’의 심리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 창피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② ⑧: 상대방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⑨: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행동하고 있다.
- ④ ⑩: 상대방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고 있다.
- ⑤ ⑪: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

25. 위 글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⑩를 (나)의 시점으로 바꾸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이 사내는 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 ② 이 사내는 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득의감을 맛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 ③ 그 사내는 구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득의에 찬 듯한 표정을 지었다.
- ④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득의감을 맛보고 있었다.
- ⑤ 그 사내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득의감을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 26. 위 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미술관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할 때,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내: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이 내 후배라오. 대단하지요?  
자, 대충 보았으니 이제 점심이나 먹으러 갑시다. 내가 한턱내지요. ..... ①
- 최 군: 요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작품이 화제입니다.  
저 작품 좀 보고 갑시다. 그래야 교양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 ②
- 구보: 글쎄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 ③
- 최 군: 그래도 이런 작품 하나쯤 거실에 걸어 두면 품이 날 텐데,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 ④
- 구보: 아무튼 요즘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려 해서 문제예요. 내가 소설을 쓰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이지요. ..... ⑤

## ◆ 12 MDEET 언어추론 20~22번

###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저께 장인과 통화했어.”

문식은 새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말고 라이터를 내려놓았다. 무슨 말을 또 하려는 것인가. 자영은 이제 문식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마치 매일 스스럼없이 문안 전화를 하는 사위인 양 천연스런 저 태도. 문식과 자영이 베풀렸다고 해서 그들이 자영의 집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손님처럼 깍듯한 예의를 지키면서 방문하는 명절, 제삿날, 집안의 경조사……. 자네 왔는가. 잘 가게. 그 두 마디가 집을 나올 때까지 문식이 듣는 말의 전부인 그 방문을 지속시킨 것은 문식의 생각이었다. 문식은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지만 실은 양간음의 하나라고 자영은 짐작하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빈틈없는 사위가 되는 것. 문식은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내는 것처럼 보였다.

“별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어. 그렇지만 다른 때처럼 그냥 끊지 않는 않으신더군.”

문식의 말에서 자영은 그가 아버지에게 전임이 될 거라는 말을 헤음을 안다.

“손주 보실 거라는 얘긴 미처 못 했는데 뭐라 하실지 궁금하네.”

말끝에 문식은 후후 웃는다. 대단한 복수가 아니야? 문식의 웃음 속에 담긴 음흉함을 엿본 듯 자영의 얼굴이 월칵 붉어진다. 그토록 아버지와의 화해를 바랐으면서 이 뒤틀리는 감정은 무엇인가. 자신이 한 말의 반응을 살피려는 듯 찬찬히 그녀를 응시하는 문식의 부드러운 눈을 자영은 오래 마주 볼 수가 없다. 그는 참으로 잘 견뎌 냈는데. 언제고 팽개쳐 버리고 싶었던 것은 오히려 내 쪽이었는데. 스물몇 해를 길들었던 안락함이 그리워 몸부림치며 불시에 아버지에게 달려가 무릎을 끊고 싶어, 그것이 두려워 늘 잊을 것 없는 ①방을 꼭꼭 잡그며 살았는데…….

자영은 이제 그만 가자고 말한다. 휘황한 빛 아래서 그의 얼굴을 더 마주하고 있을 자신이 없었다. 커피 대신 마신 코코아의 들彻한 기운이 예측하게 목구멍을 넘어왔다. 그를 닦달할 수도 없다. 전임이 되는 것.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 아이를 기진 것. 이 모든 사실은 그의 공이며 이런 일로 그를 비난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다.

“그래, 일어날까?”

비칠, 하며 일어서는 자영에게 문식이 손을 내밀었다. 그녀를 향한 문식의 손은 희다. 부드러워 보이며 따뜻하기도 하리라. 그 손을 맞잡지 못하고 자영은 물끄러미 내려다보기만 한다.

(중략)

머쓱한 얼굴로 손을 거둔 문식이 문을 향해 걸어간다. 자영은 긴 숨을 내쉬고 그 뒤를 따라 찻집을 나왔다. 막 지기 시작하는 낙엽이 바람에 휩쓸리는 길을 그들은 묵묵히 걸어갔다. 전철역 앞 포장마차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문식의 창백한 옆얼굴을 훑고 지나간다. 시든 꽃을 거두는 꽃장수와 신문 판매대의 남자가 그들을 힐끗 돌아보았다. ②서너 걸음 떨어져 문식을 품으며 자영은 망설였다. 이것은 소리치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가 저렇게 곧게 고개를 들고 걷는 것은 냅시 화가 나 있다는 뜻이다. 그에게로 다가가서 팔짱을 끼자. 어렵다면 아무 말을 하지 않은들 어떠랴. 그도 충분히 미안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무언가가 자영을 망설이게 했다. 그녀의 안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억센 힘이 문식에게로 내뻗는 ③팔을 부여잡았다. 어스름한 전철역 안

에 들어설 때까지도 자영은 그를 따라잡지 못하고 만다.

페르르르릉. 귀를 때리는 경고음에 이어 열차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드문드문 서 있던 사람들이 몸을 움츠리며 선로가로 모여들었다. 문식은 힐끗 그녀를 돌아본다. 그 눈에 서린 간절함을 자영은 보았다. 찌든 생활을 떨치고 날아가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보았다. 자신을 향해 보이지 않는 손짓을 하는 그의 주머니 속의 손을 보았다. 이제라도 그가 손을 뻗어 온다면 자신은 그 손을 마주 잡아야만 할 것 같았다. 그 숨 막힐 듯한 흡인력을 자신은 어찌지 못할 것 같았다. 내가 손을 잡지 않는다면…… 그는 내게로 올까. 와서 나를 부축해 줄까. 자영은 문식의 타오르는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는 절대로, 한 발짝도 뒤로는 물러서지 않을 듯 보였다. 아아, 저것이 문식이다. 어떤 것도, 아무런 사람도 그를 막을 수는 없다. 기차가 들어오기까지의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문식을 향한 사랑을 느낀다. 그는 떠나갈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드륵 열리는 문으로 사람들의 바쁜 그림자들이 빨려 들어간다. ④노란 선 위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문식이 결심한 듯 문 안으로 들어갔다. 돌아서서 그녀를 보고 우뚝 선 문식의 얼굴이 커다랗게 확대되어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 눈은 호소하듯 그녀를 향해 열려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지쳐 보였다.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기세로 문이 닫히고 이윽고 철커덕 소리 내며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문식의 호소하는 듯한 눈이 미끄러지듯 그녀에게서 멀어져 갔다. 환한 빛 더미들이 터널 속 깊고 긴 어둠으로 한칸 한칸 사라지는 것을, 마침내 마지막 잘린 빛이 삼켜지고 동굴 같은 어둠이 남는 것을 자영은 묵묵히 바라보았다. ⑤무덤가를 지나온 듯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또 다른 열차의 도착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몸을 돌려 역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어딘가 갈 곳이 있는 사람처럼 또각또각 걸어 나갔다.

- 서하진, 추일 서정 -

### 20. 위 글에 나타난 서술 방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현재 시제의 문장을 활용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높여 준다.
- ② 독백체의 문장을 활용하여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 ③ 짧은 호흡의 문장을 통해 주인공의 심리적 긴장 상태를 드러낸다.
- ④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다른 등장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 ⑤ 서술의 주체가 되는 등장인물의 교체를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

### 21.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식’은 ‘아버지’에 대해 애증을 가지고 있다.
- ② ‘자영’은 ‘문식’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
- ③ ‘자영’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다.
- ④ ‘문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 ⑤ ‘문식’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자영’이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

---

22. ①~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인물 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는 기능을 담당한다.
- ② ②: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공간적 거리로 나타낸다.
- ③ ③: 상대방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상징한다.
- ④ ④: 두 인물 사이의 경계를 의미한다.
- ⑤ ⑤: 주인공이 벗어나려는 상황을 상징한다.

의지였다.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다. 그런데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쩌면 쾌적스럽기까지 했다. 나미도,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앗아 갔던 아틀리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나날이 권태 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이따금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의 일이. 실내엔 담배 연기가 꽉 차 있었고 선정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어쩌다가 내가 나미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얘기를 시작했다.

나는 D 고지에서 전투 중인 ○○ 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음료수가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T에서 거기까진 팔십 킬로 거리였지. 나와 한병장은 밤중에 급수차를 몰아 T를 떠났어. 한 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둠과 정적. 무언 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의 귓가에서 부서지고, 부챗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선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그 정밀함이란 길바닥에 뒹구는 돌에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참자는 별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 까지도 죄다 눈에 잡히는 듯했어.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전엔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했어. 이따금씩 여우나 늑대 따위들이 길을 횡단하여 쓴살같이 사라지곤 했어. 어둠 속에서 한가로이 떠돌던 나방이 떼들은 갑작스런 불빛에 방향 감각을 잃고 윈도에 머리를 부딪혀 빗방울처럼 떨어져 죽었고.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지. 그는 겁에 질린 해쓱한 표정으로 나를 힐끔 결눈질했을 뿐이야. 그렇지,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회 마저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그리고 심영에서 샘처럼 솟아 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이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이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라고 생각하며 나는 혼자서 빙긋 웃었어.

한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잡아 들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 “차일병은 무섭지 않나?” “아뇨, 전연.” “대단하군. 여기선 적이 언제 어디서라도 나타날 수 있지.” “저는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언짢니까, 제대가?” “석 달 남았지.”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곳에 온 뒤론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났지. 몇 시간 지체하고 나니 벌써 동이 트더군. 이제부터 정말 위협이 시작될 것이라 싶더군. 왜냐하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면 공중 사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데다 불별 같은 폭염이 사정 없이 쏟아져 그도 또한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지.

## ◆ 21 수능 22~25번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①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 “이런 전선에서 두부 장수 종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수돗물이 넘치는 소리가 웬일일까?”라고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던 것이다. ‘이런 전선에서’란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중략)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서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그가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을 것인지. 대체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무료한 가운데서도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가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기에. 때문에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찾고 있는 ⑥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런저런 것을 알아보노라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제 나는 그와 한마디 얘기라도 나눠 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심정이다.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그 곁엔 개가 종종걸음으로 따르고 있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린다. 비치파라솔·케잌·연탄불 따위들이 착착 있을 곳에 놓여진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준비를 끝낸 노인은 이내 포장 안에서 빠져나와 [B] 개를 데리고 물웅덩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개는 하루 사이 아주 눈에 띄게 쇠약한 모습이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면면히 솟아 나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22.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A]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경험한 사실을, [B]는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③ [A]는 공간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B]는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삽입하여, [B]는 인물들의 반복되는 행동을 제시하여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중심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B]는 주변 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사건들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2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일상을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에서 ‘나미’를 만나 전쟁의 경험담을 전한다.
- ② ‘나’는 D고지로 향하는 도중 음료수가 떨어져 곤란함이 가중된 상황에 처한다.
- ③ ‘나’와 ‘한병장’은 어둠을 밝히는 헤드라이트로 인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어 공격을 받는다.

- ④ ‘나’는 임무 수행 중에 결혼할 계획을 밝히며 귀환 후의 꿈 같은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 ⑤ ‘나’는 전장에서 귀환한 후 자신의 긴장감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생동감을 느낀다.

24. ④, 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⑥를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한다.
- ② ‘나’는 ⑥의 정체와 ‘노인’이 ⑥를 찾는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한다.
- ③ ‘나’는 ‘노인’이 ⑥를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 한다.
- ④ ‘나’는 자신과 ④의 관계에 대해 타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⑤ ‘나’는 ④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노인’은 ⑥를 상실한 상태에 있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은 신체의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 청각을 통해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나타내거나, 과거 경험을 후각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시각을 통해서는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 주는 한편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낸다. 또한 체념 상태를 혼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범민을, 행동을 통해 제시한다. 이는 ‘나’가 사막 같은 현실에 벌을 내딛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①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의 느낌을 ‘나’가 ‘전선에서’ 느끼는 ‘전쟁 냄새’라고 지각하는 데에서, 과거의 경험이 상징적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군.
- ②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를 듣고 ‘밖’은 ‘무의미하고 태평스럽’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나’의 현실 인식이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군.
- ③ ‘돌’, ‘벌레’ 같은 것들을 ‘입체 영화’처럼 보며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 체감하는 데에서, 전장의 긴장 속에서 ‘나’의 감각이 극대화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군.
- ④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하는 데에서, ‘나’가 전쟁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체념적 현실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군.
- ⑤ ‘믿어지지’ 않는 ‘노인’의 행위를 지켜보고 ‘방 안을 오락가락’ 하는 데에서, 현실 인식에 대한 ‘나’의 범민이 행동을 통해 제시되고 있군.

## ◆ 05 수능(예비) 21~25번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들어가두 웬찮으니?”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마루 위로 오른다. 걷기보다는 몸을 위로 올리기가 더 힘들다. 바깥이 조용해진다. 아마 주사와 선생은 술집으로 간 모양이다. 소년이 책 ⑦ 나부랭이를 챙겨 가지고 나온다. 부러진 연필 토막이 희미한 남포 불빛을 받아 눈에 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 허리를 굽히고 방 안으로 들어선다. 어둡고 냄새가 고약하다. 소년이 불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 벽 중간에 있는 뜬다. 호야가 양철에 부딪치면서 소리를 낸다. 소년이 나간다. 그는 불 건너편 벽에 기대앉아서 담배를 피워 문다. 연기를 내뿜는다. 불꽃이 한참 있다가 흔들린다.

소년이 침구를 안고 다시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을 편다. 일어설 때 보니 가슴에 훈장이 달려 있다. 그는 그를 가까이 불러서 그 훈장을 들여다본다. 둑근 바탕에 가로로 5년 2반이라 써어 있고 그것을 가로질러서 세로로 반장이라 써어 있다. 조합한 비닐 제품이다.

“너 공부 잘 하는구나.”

“예. 집때두 일등했어요.”

아, 이건 뻔뻔스럽구나, 못생기고 남루한 옷을 입은 주제에.

“여기가 너희 집이니?”

“아녜요, 여긴 이모부 댁이에요. 저이 집은요, 월출리예요. 여기서 삼십 리나 들어가요.”

가난한 대학생. 덜커덩거리는 밤의 전차. 피곤한 승객들. 목쉰 경적 소리. 종점에 닿으면 전차는 앞뒤 아가리를 벌리고 사람들을 벨어 낸다.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 간다. 초라한 길가 상점들의 희미한 불빛들이 그들을 견져 낸다. 그들은 고개들을 가슴에 묻고 조금씩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간다. 그리고 은밀히 하나씩 둘씩 골

[A] 목들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가난한 대학생 앞에 대문이 나타난다. 그는 그 앞에 선다. 뒤를 돌아본다. 그리고 망설인다. 아, 이럴 때 꽝꽝 두드릴 수 있는 대문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는 주먹을 편다. 편 손바닥으로 대문을 어루만지듯 훈든다. 또 훈든다. 고무신짝 끄는 소리가 들려온다. 식모의 고무신짝은 겸손하게 소리를 낸다. 그는 안심한다. 안심이 배 속으로 쑥 가라앉는다.

“학픈 여기서 다니니?”

그는 눈을 제슴츠레하게 뜬다. 심지를 줄인 남포불이 눈앞에서 가물거리고 있을 뿐 소년은 보이지 않는다. 방바닥이 뜨뜻하다. 술이 점점 더 취해 오른다. 그는 옷을 입은 채 허리를 굽히고 손발을 이부자리 밑으로 쑤셔 넣는다. 넥타이를 풀어야지. 그러면서 그는 눈을 감는다.

“일등을 했다구? 좋은 일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 영국, 불란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내 돈 한푼 안 들이고 나랏돈이나 남의 돈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돈 없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흔한 것이 장학금이다. 머리와 노력만 있으면 된다. 부지런히 공부해라, 부지런히. 자신을 가지고.”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알아들을 수도 없다. 그는 입을 다물고 홍얼거렸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머릿속에는 풍물한 가운데에 하나의 천재가 열등생

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너는 아마도 너희 학교의 천재일 테지. 중학교에 가선 수재가 되고, 고등학교에 가선 우등생이 된다. 대학에 가선 보통이다가 차츰 열등생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온다. 결국 이 열등생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고생해 온 셈이다. 차라리 천재였을 때 삼십 리 산골쪽으로 들어가서 멘나무꾼이 되었던 것이 훨씬 더 나았다. 천재라고 하는 화려한 단어가 결국 촌놈들의 무식한 소견에서 나온 허사였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못된다. 그들은 천재가 가난과 끈질긴 싸움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열등생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몰랐다. ⑤ 누구나가 다 템스 강에 불을 쳐지를 수야 없는 일이다. 허옇게 색이 바랜 짧은 바지를 입고 읍내까지 몇 섭리를 걸어서 통학하는 중학생. 많은 동정과 약간의 찬탄. 이모 집이나 고모 집이 아니면 삼촌이나 사촌네 집을 전전하면서 고풀 배를 졸라매고 낡고 무거운 구식의 커다란 가죽 가방을 옆구리에다 끼고 다가오는 학기의 등록금을 골똘히 생각하며 밤늦게 도서관으로부터 돌아오는 핏기 없는 대학생. 그러나 보면 천재는 간곳이 없고, 비굴하고 피곤하고 오만한 낙오자가 남는다. 그는 출세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때한 것도 주임 교수의 인정을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외국에 가는 기회는 단 하나도 그의 시도를 받지 않고 지나치는 법이 없다. 따라서 그가 성공할 확률은 대단히 높다. 많은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 적중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적중하느냐 않느냐가 아니라 적중하건 안 하건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데에 있다. 적중하건 안 하건 간에 그는 그가 처음 출발할 때에 도달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곳으로부터 사뭇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와 있음을 깨닫는다. 아— 되찾을 수 없는 것의 상실임이여!

- 서정인, 강 -

21. ‘그’와 소년의 만남이 갖는 서사적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그’와 소년 사이에 유대감이 형성되도록 한다.
- ② ‘그’로 하여금 행복한 유년 시절을 회상하게 한다.
- ③ ‘그’가 소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한다.
- ④ ‘그’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 ⑤ ‘그’가 자신의 과거에 자부심을 갖는 동기를 마련해 준다.

22. [A]의 표현 방식이 주는 효과를 잘못 지적한 것은?

- ① 현재형 서술로 삶에 대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 주는 듯해.
- ② 밤 풍경을 주관적으로 묘사하여 고단한 일상을 암시하는 듯해.
- ③ 사물을 활유적으로 표현하여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듯해.
- ④ ‘꽝꽝 두드린다/ 어루만지듯 훈든다’의 대비에서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것 같아.
- ⑤ 빠른 장면 전환은 단절되면서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의식을 보여 주는 것 같아.

23. <보기>를 참고할 때, ⑦과 유사한 기능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1점]

—————<보기>—————

나부랭이 **▣** 어떤 부류의 사람이나 물건을 낮잡아 이르는 말. ¶**양반** 나부랭이/ 관료 나부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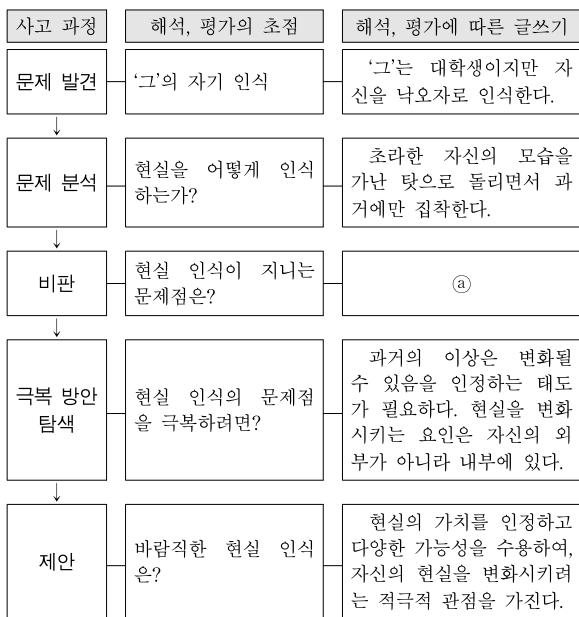
- ① 동우회라는 것은 일선인(日鮮人)의 동화(同化)를 표방하고 귀족 멸거지를 중심으로 하여 바둑, 장기로 세월을 보내고 저녁때면 술추련이나 다니는 회이다. - 염상섭, 만세전 -
- ② 조롱게 생긴 계집애한테루 장가를 들랴면서 기생 년을 꾸어차구 다니니 하늘이 알아보실 일이지. - 채만식, 탁류 -
- ③ 주제 년은 기자 녀석을 내쫓자, 이놈이 제일 말썽이다. - 김성한, 무명로 -
- ④ 관청 주변에서 턱찌끼 먹고 살아온 여자라 벌써 친정 동생에 조카에 일가 푸네기가 네댓 명이나 되었다. - 송기숙, 녹두장군 -
- ⑤ 그의 오른쪽으로 놓인 좌석에 앉아 있던 젊은이 한 떼가 높은 목소리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었다. - 김승옥, 차나 한 잔 -

- ① 과거에 사로잡혀 현실을 편협하게 바라본다.
- ② 자신의 문제를 상황 탓으로 돌린 채 책임을 회피한다.
- ③ 자신의 현실에 담긴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 ④ 가난을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
- ⑤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무시한다.

24. ⑤의 함축적 의미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 ② 꿈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슬픔과 고통을 포용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 ④ 삶에는 흘러가 버린 강물처럼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
- ⑤ 현실에 모순이 있다고 해서 늘 저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5. ‘그’의 현실 인식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 위해 모둠별 토의를 하였다. 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16년 10월 고3 31~34번

###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이 거기죠?”

고깔모자를 쓴 사람은 색안경이라면 질색이다. 그에겐 색안경을 쓴 사람은 형사다. 그리고 형사는 기피자를 단속한다. 그는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까지 매달 월급날이면 정기적으로 형사의 ‘예방’을 받은 적이 있다.

“예? 예. 선생님은요.”

“나요? 난 거긴 배꼽 따고 처음이오.” / “호 호 호.”

여자의 웃음 소리는 김 씨의 상상을 망쳐버린다. 그는 장님이 되는 생각을 비장한 마음 없이는 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바야흐로 절정에 도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킁킁거리는 여자의 ①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살찐 여자. 그리고 그는 안마장이. 그러나 그는 별로 서운치 않다. 포동포동한 여인을 안마한다는 생각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를 부르는 여자는 그의 애인이고 킁킁거리며 웃는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다. 그는 그녀의 남편을 안마한다. 그녀는 바로 곁에서 시중들고 있지만 안경을 끼고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안마를 끝마친다. 그녀는 그에게 몇 푼의 돈을 쥐여준다. 그는 그것을 받아넣고 다시 길거리로 나온다. 그리고 통소를 꺼내 불기 시작한다.

“아, 이제 떠날래나?”

창문인 줄만 알았던 앞쪽의 유리창 일부가 밑에까지 움푹 패이면서 열리자 장갑 끼는 손이 쑥 들어오더니 턱과 뺨 위로 수염이 겹겹이 걸친다. 운전사는 차 안으로 끌어들인다. 머리가 들어오자 잠바가 따라 들어오고 그 뒤로 호주머니까지 허옇게 넓은 코르덴 바지가 펼려 들어온다. 운전사는 자리에 앉자 한 손으로 운전륜을 잡고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본다. 손님 머릿수가 적은 것이 눈에 안 차는 모양이다. 꿈하고 돌아앉아서 한쪽 어깨를 기울이고 스위치를 넣더니 부르릉 발동을 진다. 삼십 분 동안이나 기다린 손님들이 오히려 미안해 해야 할 모양이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수가 적은가? 정원 사십팔 명에 한 백 명쯤 타가지고 숨도 못 쉬고 부적거리고 있더라면 운전사가 조금은 미안해했을지도 모를 텐데.

“애, 이제 슬슬 떠나보련?”

잠바를 입은 사나이는 영덩이부터 차에 오르고 있는 여차장을 쳐다보고 있다.

“네, 곧 가요.”

차장은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생각이 전혀 없다.

“아직 안 가?”

“곧 가요.” / “여기가 중국집인 줄 아니?”

“왜 내가 중국집에 있어요?”

② 차장은 비로소 뒤를 돌아본다.

“너, 곰이로구나?” / “내가 왜 곰이어요? 아저씬 뭔데요?”

“나? 난 네 할배다.”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고깔모자는 자연스럽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 특히 왼쪽으로. 여자는 그럴 때마다 창문 쪽으로 피하는 척한다. 그리고 미안한 생각에서 그를 쳐다보아준다.

“군하리엔 뭣 하러 가세요?” / “놀러요.”

“일행이세요?”

“예.” ③ 그는 목소리를 낮춘다. “저 사람은 늙은 대학생 김 씨. 이쪽은 세무서 직원 이 씨. 그리고 난 얼마 전까지 국민학교 선생. 성은 박 씨. 대개 이렇소.”

“정말 묘하게 어울리셨어요. 친구분들이세요?”

“우린 한 집에 살고 있지요.” / “어머, 그러세요?”

“그럼은요. 우리집에 저 두 사람이 하숙하고 있지요.”

김 씨는 차창 유리에 이마를 댄다. 차체의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어온다. 그는 이마를 펜다.

④ “이 차도 달릴 줄 아는군. 난 세워두려고 만든 줄 알았더니.”

“그게 다 우리 차장이 ‘오라이’ 한 덕분이지. 애, 안 그래?”

잠바를 입은 이 씨는 나일론 천의 윤이 나는 검은빛 바지를 입은 여차장의 영덩이가 크다고 생각한다. 차장은 아직 화가나 있다. 이 씨는 잠바 호주머니에서 껌을 한 통 꺼낸다. 김 씨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달리는 버스는 유쾌하다. 속이 흑트이는 것이 만사가 술술 풀릴 것 같다.

“너 이거 꺼울 줄 아나?”

이 씨가 껌을 하나 쑥 뽑아서 차장의 등뒤로 들이민다. 차장은 뒤를 돌아보고 괴식 웃는다.

⑤ “곰이 어떻게 껌을 먹어요?”

“뭐? 하 하. 제법이구나. 됐어. 곰은 원래 재주를 잘 부리지. 먹어둬. 손해될 거 있나?”

차장은 껌을 받는다. 이 씨는 옆에 있는 김 씨에게 그리고 뒤에 앉은 박 씨와 그 옆의 여자에게까지 고루 껌을 하나씩 권한다. 그리고 남은 하나를 끄집어내서 껌질을 벗긴다.

박 씨는 여자와 급속도로 친해지고 있다.

“집이 원래 군하리요?”

“아뇨. 인천예요.”

“아, 의사하셨군.”

“아뇨, 그냥 거기서 살아요. 엄마하고 언니하고… 그렇게 그냥 셋이 살아어요.”

“인천서요?” / “아뇨. 군하리서요.”

“인천엔 아무도 없구요?”

⑥ “아뇨. 거기두… 아이,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으세요?”

“참, 그렇군.”

참 그렇다니. 김 씨는 실소한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지 만 등뒤에서 하는 이야기를 죄다 듣고 있다. 그는 항상 시치미를 뚝 떼고 있기를 좋아한다. 알고도 모른 척, 모르고도 모른 척. 그것은 대단히 즐거운 일이다. “당신 아무래도 수상한데?” 뭐가? “어제 두시에서 다섯시까지 사이에 어디에 있었수?” 건 왜 물우? “안 되지. 난 못 속이우. 박형은 속여두 난 못 속인단 말이우.” 허 허 허 허.

그는 슬쩍 이 씨를 옆눈질해 본다. 제 비록 약다 하나 이쪽에서 가가대소만 하고 있는 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으리오.

“았어, 응? 서 있으면 몸에 해롭지.” / “괜찮아요.”

“아, 지금이야 괜찮지. 이 땀에 캐서 시집갈 때 해롭단 이야기야.”

차장은 얼굴을 붉히고 중간쯤에 있는 빈자리에 가서 앉는다. 이 씨는 빙그레 웃는다. 실속이 없는 줄 알면서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는 기분이 좋다. 그는 잠바 목 속에서 하얀 목도리를 조금 꺼내올려 컷부리를 포근히 감싸주고 의자에 등을 기대면서 담배를 뽑아 문다. 불을 붙일 생각을 하지 않고 창밖을 내다본다. 뿐듯이 흐린 하늘에는 눈발이 이따금씩 희끗거리고 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뒤에 앉은 박 씨만이 낮은 목소리로 여자와 소곤거린다. 몇몇은 몇 날의 ⑦ 웃음소리만 가끔 엔진 소리 위로 솟아오를 뿐, 대체로 무슨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

---

3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여차장'은 버스가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고 출발한 것에 대해 기분이 상해 있다.
- ② '김 씨'는 '이 씨'의 옆에, '박 씨'는 '이 씨'의 뒤에 앉아 있다.
- ③ '이 씨'는 '여자'에게 군하리에 가는 이유를 묻고 있다.
- ④ '운전사'는 손님들에 대해 미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 ⑤ '김 씨'는 일행이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이다.

3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이 하던 상상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 ② ㉡은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있다.
- ③ ㉠으로 인해 조성된 긴장감은 ㉡을 통해 해소되고 있다.
- ④ ㉠은 인물에 대한 호감을 강화하고, ㉡은 인물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인물의 상상 속에서만 들리는 것이다.

33.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인물에 대해 지금까지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에 대해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 ③ Ⓝ: 비꼬는 말투를 통해 버스가 늦게 출발하게 된 상황에 대한 불만을 엿볼 수 있다.
- ④ Ⓞ: 상대방이 앞에서 자신에게 했던 농담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윗글에서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부분적이고, 과편적으로 제시된다. 이들이 나누는 대화는 제자리에서 겉돌며 진정한 의미의 소통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소설에서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개되는데 윗글에서는 사건의 자연스러운 전개를 방해하는 서사적 장치들도 사용되고 있다.

- ① '박 씨'에 대한 정보는 '고깔모자', '기피자', '전직 교사'와 같이 부분적인 것들이 흩어져서 제시되고 있다.
- ② 한집에 사는 '김 씨', '이 씨', '박 씨'들은 서로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지만 진정한 소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③ '이 씨'가 '여차장'에게 무의미한 농담을 건네는 모습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박 씨'와 '김 씨', '이 씨' 등으로 서술 대상을 계속 바꾸어서 서술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사 전개를 지연시키고 있다.
- ⑤ '김 씨'가 장님이 되는 상상에 빠져드는 장면이 다른 인물들의 대화에 바로 이어져서 서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 ◆ 10 MDEET 언어추론 26~28번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작은 했지만, 와서 보니, 너무 좋아요.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그동안 너무 텔레비전만 보았어요. 여성 잡지(주로 천연색 화보)하고요. 사실은 겨울 바다를 보고 싶은 마음도 텔레비전에서 암시받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사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사자는 태어날 때, 어미 배를 찢고 나온대요. 그래서 사자는 새끼를 한 번밖에 못 난대요. 바닷가에 나오고 싶은 생각은 전시상자에서 나왔는데, 막상 바닷가에 와서 보니,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 벼렸어요. 지금 우린 여기서 뭔가를 직접 만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⑦ 그것이 자연인지, 삶인지, 삶 속의 신비나 경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바보상자에 가려서 간접적으로만, 그것도 뒤틀려서 나타났던 것이 눈앞에 직접 나타난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를 깨달을 겨를이 그동안 별로 없었어요. 그 속에 폭 과물혀 있었거든요. 어떤 물건을 그 속에 있으면서 나쁘다고 생각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일 거예요.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벌써 그 속에 있지 않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바보상자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가 봐요. 우리들은 지금 이 경치의 아름다움을 ⑧ 그것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백치상자의 추악함을 ⑨ 그것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한 사물의 미·추는 그것 자체의 미·추에 의해 서가 아니라, 그 미·추를 바라보는 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같아요. 아무리 추악한 사물도 그 사물의 눈으로 바라보면 추악할 수가 없고, 아무리 아름다운 사물도 그 사물의 눈이 아닌 눈으로 바라보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제 뜻은 구리지 않고, 며느리의 발뒤꿈치는 계란 같아서 흥하죠. 우리들은 어젯밤 비치호텔에서 묵었어요. 비치호텔! 우리들은 그만 그 이름에 깜빡했어요. 물위에 솟아 있지 않은 한 더 이상 바닷가로 갈 수 없을 만큼 백사장 뒷길에 붙어 있으니, 물가여관은 분명 물가여관이죠. 그리고 전면이 바다로 향해 있고, 그 전면에 베란다가 삼층에까지 있으니, 바닷가여관도 꼭 좋은 바닷가여관이죠. 나는 거기에 투숙한 것을 백치상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저기 저 시멘트 반죽으로 빌라 올린 삼 층 회색 전물을. 저건 여인숙이에요. 비치호텔은 아침 헛빛 속에서 해안여인숙으로 나타나 있었어요. 옆으로는 뒤에 다닥다닥 들어서 있는 가건물들이 내보내는 더러운 하수가 흘렀어요. 도대체 해안여관이라는 말에서 떠오르는 영상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다와 모래 말고는. 텔레비전 속의 삶이 박살이 났어요. 텔레비전은 바다와 모래의 아름다움만 제대로 보여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해안여인숙의 추악함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했어요. 해안여관만 박살이 난 것이 아니라 천치상자 자체가 박살이 났어요. 천치상자 자체가 박살이 났길래 그동안 그것에 가려서 못 보았던 것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아니, ⑩ 그것에 가려서 뭔가를 못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껌데기의 삶이 깨쳤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말짱 껌데기였다는 것에까지 생각이 미쳤어요. 그런데, 그 껌데기의 삶이 전혀 추악하게 비치지를 않아요. 천치상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집에 돌아가면, 아마 다시 덩청상자들을 열심히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린 그거 아니면 이야기거리가 없고, 그거 아니면 쇼핑을 할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축에 끼일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시간을 보낼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생각을 할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여성 동창들인데요, 앤 농협 단위 조합에 나가고, 난 타자 학원 경리를 보고 있어요. 처음엔 한타 강사 노릇을 했지만, 원장의 눈에 들어서 관리적으로 옮겼어요. 강사는 노무직이거든요. 우리들은 편한 것을 좋아해요. 안방에 앉아서 등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싸움도 하고, 입원도 하고, 실연도 해요. 어쩌다 초대권이 생겨서 전람회나 운동장 같은 데를 가보면, 허리도 아프고 헛별도 따갑고 짜증스러워요. 연애도 김이 빠져요. 흥내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린 절대 등산 안 가요. 왜 가요, 도로 내려올 것을? 여행도 완행버스 여행은 맥 빠져요. 그렇지만 여행은 더러 해요. 그리고 더러 여행이 맥 빠지는 것은 여행 탓이 아니라 여행에 대한 잘못된 바라봄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도 해요. 그러나 그 깨달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깨달은 다음에는 안심하고 다시 텔레비전에 폭삭 빠지거든요. 불이 났을 때 물을 조금 부으면 소리를 내면서 더 잘 타는 거 있죠? 과음으로 위장을 상한 사람이 의사한테 빨리 병을 고쳐 달라더래요. 다시 술 마시게요. 약을 조금 고치는 것은 그 약을 고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약을 조금 고치는 것은 그 약을 오래가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들은 지금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어요. 적금도 하고, 계도하고요. 그게 거의 우리들의 유일한 즐거움이에요. 명청상자가 보여 주는 모든 좋은 물건들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사치와 편의와 편리뿐만 아니라, 미덕과 선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명청상자는 무슨 운동, 무슨 운동 해서, 좋은 일 하자는 운동까지도 무슨 협찬, 무슨 협찬 해서, 돈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은 많은 친구들을 뼈膈거리고 연기를 피우고 물방울들을 수없이 날려서 우리들의 눈을 어지럽게 하는 이 휘황찬란한 착각으로부터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① [그것]은 불편하고 귀찮고 괴로워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바다로 산책도 나오고, 이름난 명승지도 찾아서, 그 착각으로부터 조금씩 깨어나요. ② 그것을 오래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 서정인, 달궁 -

26. 위 글의 화자, 바닷가, 텔레비전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텔레비전이 있는 안방을 떠나서 직접 바닷가를 찾아왔지만 화자의 머릿속에서는 텔레비전이 떠나지 않는다.
- ② 왜곡된 이미지에 현혹된 상황을 텔레비전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화자에게 텔레비전은 추악하게 보인다.
- ③ 화자에게 텔레비전은 바닷가를 찾아오게 만든 조건이면서 바닷가를 그 자체로 볼 수 없게 하는 인식의 장애물이다.
- ④ 바닷가의 비루한 풍경을 경험한 화자는 텔레비전의 세계로 되돌아가겠지만 앞으로도 바닷가를 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텔레비전 시청을 통해 직접적 경험을 대체해 온 화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닷가를 직접 찾은 것은 이례적인 경험에 해당한다.

27. ①~⑤ 중, ①로 나아가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 ① ⑦      ② ⑧      ③ ⑨      ④ ⑩      ⑤ ⑪

28. 위 글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사회는 비판적 성찰을 체제 내부에 귀속시켜 오히려 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 ②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점진적인 교정을 통해서 광범위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③ 현대 사회의 대중 매체는 욕망의 매개함이며 사람들의 욕망은 기호와 이미지의 흐름을 좇아서 움직여 나간다.
- ④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일시적인 자각은, 역설적으로 현대 사회가 제공하는 안락함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데 도움이 된다.
- ⑤ 현대 사회에서 이미지의 축조는 '해안여인숙'에서 '바닷가여관'으로 다시 '비치호텔'로 그 호명 방식을 바꾸는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